



대해 스님은 1946년 경기도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2년 향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았으며 일체의 주지 소임을 맡지 않고 전국의 제방 선원이나 토굴에서 참선 정진해왔다.

6년 전부터 함양 안의면의 작은 토굴에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공양주 없이 손수 공양과 빨래를 하고 무, 배추 등 각종 농사를 지으며 지내고 있다. 손님이 왔을 때를 제외하고 저녁 공양은 하지 않는다. 손님이 오면 함께 먹는 것이 대접이라는 생각에 스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고집하지 않는 까닭이다. 이처럼 스님의 일상은 웅담이는 채우고 정애물을 만나면 돌아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발심하여 참구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룬다고 강조하는 대해 스님.

“발심하라... 놓고 또 놓아라”

대해 스님 (변조암 주지)

들리지 않았다. 분명 대해 스님은 법문을 하고 있는데 들리지 않았다. 돌린 귀로 들을 수 없고, 멀쩡히 있는 두 눈에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는 곳, 그곳에 나는 자리하고 있었다. 졸지에 귀머거리, 당담봉사가 돼 멍하니 앉아 있는 ‘나’를 향해 스님은 단호하게 취재 거절의 의사를 거듭 밝혔다.

“눈도 안 열리고 귀도 안 뚫렸는데 무엇을 듣고 무엇을 전하겠다고?”

스님의 취재 거절, 그것은 처음 전화를 드려 찾아 뵈겠다고 했을 때부터 예상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스님을 뵈고 나니 스님의 거절보다 더욱 난감한 것은 스님은 이미 법문을 해 마쳤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나’였다. 향곡 스님의 법문을 인용하며 법문이 이어졌는데 공기를 울리는 음성으로만 들릴 뿐 뜻이 전해지지 않았다.

“깨달음의 세계는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佛)이라 하더라도 만리나 멀어졌다든 말입니다. 옛날 스님들은 부처라는 말만 들어도 귀를 뚫었다고 했어요. 설사 입을 열어 설한다해도 깨달음의 세계와는 천 리만리요, 나도 너도 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신문에 내려고 하지 말고 다만 이 자리에서 발심하여 공부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스님은 “왜 나를 신문에 내려고 하느냐”는 아주 기본적인 물음으로 내 말문을 막았다.

“놓아버려라 하는 법문을 자주 듣지요? 무엇을 놓아 버리라는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후회 법지가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기 위해 양손에 꽃을 들고 부처

님께 올리려고 하자, 부처님께서서는 ‘놓아버려라’ 하셨죠. 오른손에 든 꽃을 놓고 또 왼손의 꽃마저 놓아도 부처님의 ‘놓아라’는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법지는 ‘더 이상 놓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더 놓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쭙게 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엇을 놓아버려라고 한 것일까요? 바로 밖으로 6진(六塵)과 안으로 6근(六根), 중간의 6식(六識)을 한꺼번에 놓아버려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안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하길 하루아침에 참선을 한다고 선방에 무작정 앉아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망념과 번뇌가 놓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마음을 고요해져야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노력이 연마돼 있어야 공부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스님은 어린 시절 형님인 관록 스님의 권유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수십 만 번 외었다. 속개가 잠시 들린 관록 스님은 중학생이던 스님에게 ‘신묘장구대다라니’ 십만독을 하면 날아가는 비행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관록 스님의 말을 믿고 낮이고 밤이고 앉으나 누우나 다라니를 외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입에 익지 않아 발음도 잘 안되고 한번 읽는데 한 시간이 걸리던 것이, 나중에는 한숨에 일독을 하게 될 정도가 됐다. 스님은 출가 후 후두를 들기 시작했을 때 큰 장애 없이 공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라니 독송의 힘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아침 일어나 금강경 독송을 하거나 나만의 공부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세요. 꾸준하게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공부가 저절로 힘을 받습니다. 별의 별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몸만 얹혀 놓았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입과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참다운 공부입니다. 번뇌망상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잠시 잠깐에 서너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밤 12시에 앉으면 숨 몇 번 쉴 것 같은데 새벽 3-4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자꾸 지속이 되면 삼매가

어 중요해요. 업장을 소멸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공부가 저절로 힘을 받습니다. 별의 별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몸만 얹혀 놓았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입과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참다운 공부입니다. 번뇌망상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잠시 잠깐에 서너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밤 12시에 앉으면 숨 몇 번 쉴 것 같은데 새벽 3-4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자꾸 지속이 되면 삼매가

을 길게 퍼둬 가라, 냉후추거(冷澆去) 가을 연못처럼 맑고 맑게 가라, 고묘향로거(古廟香爐去) 오래된 법당의 향로처럼 가라,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 한 생각이 곧 만년 가게 하라, 고목한회거(枯木寒灰去) 마른 나무와 찬 재처럼 가라, 휴거(休去) 쉬어 가라, 할거(歇去) 쉬어 가라가 그것입니다. 살인자 옆에 있으면 살기가 느껴지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주위 사람들이 따뜻함을 전하게 됩니다. 오래된 법당

을 길게 퍼둬 가라, 냉후추거(冷澆去) 가을 연못처럼 맑고 맑게 가라, 고묘향로거(古廟香爐去) 오래된 법당의 향로처럼 가라,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 한 생각이 곧 만년 가게 하라, 고목한회거(枯木寒灰去) 마른 나무와 찬 재처럼 가라, 휴거(休去) 쉬어 가라, 할거(歇去) 쉬어 가라가 그것입니다. 살인자 옆에 있으면 살기가 느껴지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주위 사람들이 따뜻함을 전하게 됩니다. 오래된 법당

을 길게 퍼둬 가라, 냉후추거(冷澆去) 가을 연못처럼 맑고 맑게 가라, 고묘향로거(古廟香爐去) 오래된 법당의 향로처럼 가라,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 한 생각이 곧 만년 가게 하라, 고목한회거(枯木寒灰去) 마른 나무와 찬 재처럼 가라, 휴거(休去) 쉬어 가라, 할거(歇去) 쉬어 가라가 그것입니다. 살인자 옆에 있으면 살기가 느껴지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주위 사람들이 따뜻함을 전하게 됩니다. 오래된 법당

서 입승 스님에게 ‘조실 스님의 뜻이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이에 입승 스님이 ‘명일색변사(明一色邊事) 한결같이 순일무잡한 경지를 밝힌 도리’라고 대답했는데 사미승은 ‘그것은 조실 스님의 뜻이 아니다’며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입승 스님은 향한줄기가 타는 동안 좌탈(座脫)하여 생사에 자유자재함을 보였으나, 사미승은 그 수좌의 등을 두드리며 “앉아 죽고 서서 죽는 일은 능하지만 우리 스님의 도리는 꿈 속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끝내 긍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화두입니다. 내 말을 듣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체득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탐진치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경, 경, 문에 제 각각 스승이 있다고 하였으니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발심하고 공부하여야만 공부맛을 볼 수 있고 눈도 뜨고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발심하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내 귀에 비로소 스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랬고’ 속에 깨달음의 요체가 모두 들어있으니 발심하여 참구하라는 스님의 말씀이 마음을 울렸다. 눈 뜨이고 귀 열린 이를 기다리며 몸을 숨긴 대해 스님의 긴 기다림을 뒤로 하고 변조암을 나섰다. 벼랑 끝의 외줄을 부여잡고 올라가기도 떨어지지도 못하는 심정으로 변조암을 들어섰던 나는 변조암을 나서며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빛에 취해 천길 낭떠러지도 외줄도 모두 잊고 있었다.

선방에 앉아만 있다고 망념·번뇌 사라지지 않아 마음 고요히 가라앉히는 연습 돼야 공부에 힘 얻어

무르익고 나중엔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화두가 여일 하면서 동종일어, 오매일어, 무심삼매가 되어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평생을 선방이나 토굴에서 정진해온 스님은 장좌불와를 하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장좌불와를 한다고 내세우지 않지만 스님과 한철을 난 선방 수좌들은 몸을 누이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스님의 정진에 감탄을 할 정도다.

“청원 행사(靑原行息) 스님의 4세손에 석상 경저(石霜慶諸) 스님이 계셨는데, 석상 침거(石霜七去)라는 화두로 유명합니다. 평생 절거 법문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일조백련거(一條白練去) 한쪽의 하얀 비단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초)

-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 3) 밀납초원기등 7.4φ × 30Cm
- 4) 밀납초토너레 5.6φ × 27Cm
- 5)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6)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7)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8)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쑥양초

- 1) 원기등 7.4φ × 30Cm
- 2) 토너레 5.6φ × 27Cm
- 3) 약쑥향 1호 5.9φ × 20Cm
- 4) 약쑥향 3호 4.7φ × 13Cm
- 5) 약쑥향 4호 4.7φ × 10Cm
- 6) 약쑥향 등초 3.1φ × 12.5Cm

▶ 식물성 양초

- 1) 식물성양초 원기등 7.4φ × 29Cm
- 2) 식물성양초 토너레 5.6φ × 27Cm
-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φ × 26Cm